

NEIGHBOR

1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January, 2016 | 설미현

page 1 of 2

Feature

1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EDITOR
SEOL MI HYUN

Q & 1

2016년 1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

그곳에서 어떤 작업 혹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까?

3

1월을 그곳에서 보내는 이유는?

4

2016년, 당신의 작업을 만날 수 있는 전시 혹은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2016년 새해 안부를 물었다. 1월,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티스트 8인이 그들의 새해 소식을 사진 몇 장과 함께 보내왔다. 그들만의 인스피레이션도 함께다.

구본창



A

1 몇 년 전부터 방문하는 호텔의 첫인상을 사진으로 기록 중이다. 각 도시와 방의 인상을 유리창 너머의 세계로 표현한 것으로, 이 지면이 첫 발표가 됐다. 구본창, 호텔 시리즈, Nikko Hotel S.F., 2010
2 눈 덮인 구본창의 분당 작업실.

1, 3 분당 작업실에 있을 거다. 2월엔 페루에 간다. 수도 리마에 위치한 'Centro de la Imagen de Lima'에서 특강 초청을 받았다. 남아메리카 지역은 처음이다. 사실 한국에 있으면 촬영이나 전시 준비로 너무 바빠 여행할 여유가 없다. 이번 기회에 낯선 장소와 문화 속에서 휴식도 취하고 새로운 작업 계획도 세워볼까 한다.
2 1년을 시작하는 첫 달, 새로운 계획을 세우려면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최선이다. 지난해에는 전시도 있었고, 백자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책을 발간하느라 에너지를 바깥에 많이 쏟았다. 사진을 시작한 초기의 시간을 돌아보고 촬영만 하고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을 찾아내 손보는 것이 올해의 목표다. 4 스튜디오 옆에 작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손조롭게 진행되면 내 작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사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미 있는 교류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